

강원건설 침체의 늪서 '허덕'

10월 도내수주액 144억원·전년대비 91%↓

건설노조 파업때 올림픽 공사 차질 우려

강원도내 건설 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북통계청이 30일 내놓은 '강원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0월 건설 수주액은 1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44억원 보다 무려 91% 줄었다.

공공부문 수주액은 88억원으로 지

난해 보다 81% 줄었으며 민간분부는 55억원으로 95% 감소했다.

공종별로는 건축 8억4000만원, 토목135억원으로 각각 99%와 67% 줄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건설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89.9로 집계됐지만 3개월 째 100선을 밑돌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이어지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영월에서 아파트 건설 공사를 하던 하도급업체 A건설 이사가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까지 발생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분부는 체불 임금 정산 등을 요구하며 최근 강원도청을 향의 방문했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업까지 불사하겠

다는 입장이다.

건설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정선 증봉활강 경기장과 강릉 빙상경기장 등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건설 공사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도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종합 건설도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는데 전문건설은 상황이 더욱 안좋다"면서 "일부 최저낙찰가 동계올림픽 공사의 경우, 하도급을 받아도 손해지만 현금 동원때문에 참여하는 업체가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인제 군부대 공사 전국입찰 논란

도내업체 "제한경쟁 규정 외면... 지역업체 고사" 군 "5개 업체 이하 경우 지역제한 준수 의무 없어"

인제지역 소재 한 군부대가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내자 도내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관련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군부대 등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금액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을 두고 계약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의 경우 올해 발주한

관련사업을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제한 경쟁 입찰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5일 등록마감한 사업의 경우 관련법의 지역제한 규정 금액을 넘어섰지만 지역제한 입찰을 공시하는 등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인제지역 소재 모 부대는 최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24조 3항에 의한 7억미만의 공사

에 해당하는 3억3100여만원의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낸데 이어 30일 입찰등록을 마감했다.

해당 부대가 실시하는 공사는 탄약고와 차양대, 경계초소 신축에 따른 토양오염 복원 공사다.

특히 해당 부대의 상급 부대인 면군사령부에서도 '제한경쟁계약(지역제한) 계약방법 활용 강조' 공문을 통해 제한 입찰을 권고했지만 해당 부대 담당자는 '5개 업체 이하의 경우 지역을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들어 입찰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

관련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부대 관계자는 "강원도내에는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2개 업체밖에 없어 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체관계자는 "국가 계약법에 지역제한을 둔 것은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업체가 적다는 이유로 지역제한을 풀면 지역업체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며 "타지역 소재 부대처럼 적극적으로는 아니라도 최소한 법적인 규정만큼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제/안익호 eunsol@kado.net

국내수주 130兆 고지 눈앞 ‘사상최대’ 기록 다시 쓴다

〈2007년 112조5016억원〉

건설수주가 사상 최대치 경신의 9부 능선을 넘었다.

신규 수주 실적이 일찌감치 100조원을 돌파하며 본격적인 신기록 달성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말까지 건설수주(경상)는 105조8789억원으로 전년 동기(71조1978억원) 대비 48.7% 증가했다. ▶관련기사 2면

건설수주는 올 1월(7조2160억원) 전년 동월 대비로 30.5% 증가한 이후 2월(5조3673억원) 3.3%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3월(12조2375억원) 들어 무려 150.0% 급증하며 상승폭을 크게 확대했다.

이어 4월(9조476억원) 22.9%, 5월(12조5563억원) 83.7%, 6월(13조5594억원) 46.7%, 7월(8조6805억원) 24.6% 늘어나는 등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8월(8조4959억원) 들어서는 2.2% 감소로 주춤했지만 9월(18조8291억원) 124.8%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월의 부진을 만회했고 10월(9조8895억

10월말까지 105조 넘어
지난해보다 49% ‘깡충’
월평균 수주 10조 웃돌아
건설기성은 0.3% 증가 그쳐

원)에도 27.5% 늘어나면서 올해를 두 달이나 남겨 두고 100조원 돌파에 성공했다.

이로써 종전 최대치인 지난 2007년(112조5016억원) 기록 경신을 사실상 예약한 가운데 올해 새로 쓰여질 수주 고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 들어 월 평균 수주 규모가 10조원을 웃돌고 있는 데다 12월 실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수주 패턴을 적용할 경우 시장 전망치인 130조원 선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다만 지난 9월의 경우 수조원대의 대규모 플랜트 건설공사 등 일회성 수주 실적이 일부 포함된 만큼 새로운 기록이 기대치를 다소 밑돌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월별 수주 패턴을 보면 수주 실적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며 “4분기 수주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130조원대 수주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수주와 달리 건설기성은 사상 최대치 경신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인다.

올 들어 10월 말까지 건설기성(불변)은 72조8109억원으로 전년 동기(72조5620억원) 대비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건설기성은 올 1월 전년 동월 대비 4.4% 줄어들고 2월 0.2% 증가로 전환했지만 3월 -1.8%, 4월 -8.4%, 5월 -4.7%로 3개월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6월 0.8% 오른 이후 7월 0.4%, 8월 3.5%, 9월 13.9%, 10월 3.9%로 5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그 폭은 미미한 실정이다.

연말 건설기성이 다소 증가한다 하더라도 기존 최대치인 2007년(101조8897억원) 실적을 달성하기에는 무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경남기자 knp@